

## 커플 세미나:

# 결혼, 나의 무의식이 말하는 사랑 이야기

2025년 11월 28일(금) 저녁 6~9시

---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우리에게 별다른 호감을 일으키지 못한다.

완벽함이란 보통의 삶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 건 현실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완전한 것들이다. 성장을 향한 욕구도 불완전함에서 비롯된다. 이미 완벽한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이고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일 때 사랑은 완성된다.

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완성은 두 사람의 영혼 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제 뒤집을 수 없이 단단히 묶이게 된 남자와 여자는 과거에 그들이 원했던 관계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더 이상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 한 예로 남녀의 헤어짐을 들 수 있는데, 이별의 흔적이 남는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강한 결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적 결합을 통해 결속되어 있던 남자와 여자가 나중에 헤어지게 되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결속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한 여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꾸준히 맺어가고 싶다면, 그동안 맺었던 그 대상에게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당신에게 준 선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선물들을 당신 가슴속에 받아들인 뒤 새로운 관계 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

나중에 맺은 관계가 잘되려면 이전에 맺은 관계를 존중하고 그것에 맞는 적합한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기이한 얽힘이 만들어지고, 새로 한 결혼에서 생긴 자녀가 아버지의 과거 배우자를 자신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다. 물론 누구도 이러한 동일시에 대해 알아채지 못한다. 다만 그에 따른 결과만이 겉으로 드러날 뿐이다.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 두 사람 사이에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결속이 형성된다. 이러한 결속은 결혼이라는 법적 통과 의례의 산물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적 합일의 결과물이다. 심지어 근친상간이나 강간의 경우에도 남녀 사이의 결속이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성적 관계가 맺은 힘이다.

이 세상에는 관능성이나 성적 욕구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성욕은 아주 강렬한 충동으로,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성욕은 온갖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남녀가 사랑 속에서 성관계를 맺으면 성적 결합의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남자와 여자, 그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은 완성에 이르게 된다.

성적 결합이 지닌 힘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 관계에서 사랑이 자라도록 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간혹 성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될 때도 있다.

예컨대 둘 중 한 사람은 성관계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응하긴 하되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닐 경우, 성관계를 원하는 배우자는 열등한 위치로 전락하고 '승낙해준' 배우자는 우월한 위치로 올라서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파괴되고 만다.

사랑은 바라는 것과 주는 것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때 성장한다.

사랑은 한 사람이 표현한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이 둘 사이에 굳건할 때 성장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욕구를 표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을 때 활짝 피어나게 된다.

## 세대를 초월한 얽힘과 그 해결책

가족체계(family system) 안에는 온당함을 회복하려는 욕구와 그렇지 못한 것을 징벌하려는 욕구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가족체계 안에는 일종의 가족체계적 영혼이 존재한다. 단순 가족은 물론 조상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공동의 가족체계적 영혼은 이득과 상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든다. 이러한 시도는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한 남자가 첫 번째 부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경솔한 태도로 부인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하자. 당연히 부인은 남자에게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남자는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딸이 아버지인 자신에게 화가 나 있으며, 첫 번째 부인과 유사한 느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가족과 결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가족 역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 활짝 피어날 수 있다.

가족체계 속에 속한 사람들은 각자가 이전 세대의 누군가를 대신하는 특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양심(conscience)의 1차적 기능은 자녀를 그가 속해 있는 가족체에 묶어주는 것이다. 이 양심은 특히 자녀에게 허용된 항목들, 그리고 가족체 내에서의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견뎌내야 할 항목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녀는 자기 행위가 가족체 내에서 자리를 보장받을 때 양심적 행위를 했다고 자부한다. 반대로 가족체에 속할 권리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느

꺼질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나 한 가족체 내에서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특정 행위가 다른 가족체에서는 오히려 소속감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가족체 안에서 소속감을 얻기 위해 자녀들이 불교 신자가 되거나 혹은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불교 집안 출신의 남자와 기독교 집안 출신의 여자가 만날 경우, 두 사람은 가족체적 양심을 저버린 듯한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 종교가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원래 가족 내에서 자기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감추어진 긴장 관계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종교가 우세한가를 겨루는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

부부 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양쪽이 원래 가족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가족체적 원칙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새롭게 가족을 형성한 두 사람은 양쪽 가족체 모두에게 공정하면서도 새로운 가족체에 적합한, 말 그대로 새로운 원칙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자신의 원래 가족은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 쪽 가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은 부부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가족과 결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가족 역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 활짝 피어날 수 있다.

부부 관계로 진입하고 부모라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내려놓는 과도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단 어른 대 어른의 관계로 문지방을 넘어서고 나면 다시는 사춘기로 되돌아갈 수 없다. 부부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춘기를 등 뒤에 남겨두지 못하고, 그것을 부부 관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 할 때 발생한다.

결혼은 사춘기를 향한 작별 인사와도 같다. 결혼하지 않은 채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은 사춘기의 연장 선상에서 사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도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나는 더 낫은 사람을 찾는 중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서로에게 계속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수용하고 서로에 맞추어 갈 때, 주고받는 것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가끔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배우자는 그 희망이 언제 충족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와 30분 동안 산책하러 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면, 그 희망이 언제 충족되는지 분명해진다.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는 충족될 수 없는 희망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부 관계가 성공하기 위해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 육체적인 면만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르다.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낯선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남자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존재인 여자를 알아가야 하고, 여자 역시 남자를 알아가야 한다. 여자에게도 남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다.

간혹 둘 중 한 사람이 '나는 옳고 상대는 그다지 옳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 대개 여자들은 자신이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를 지금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는 '배우자 재교육'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 당연히 부부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남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여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어느 순간 나는 내 안의 일부를 내려놓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남녀 간의 차이점이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그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감사하는 관계의 토대이다. 비록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지만, 혹은 당신은 여자이고 나는 남자이지만,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두 사람은 자기 생각을 조금씩 접게 되고, 그 대신 감사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한다.

어쨌거나 상대방은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고, 바로 그 점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여성은 남성을 통해 새로운 것을 얻고, 남성 역시 여성을 통해 삶 속에 새로운 것을 얻으면서 둘 사이에 더욱 확장된 일체감이 형성된다.

낙태된 아이를 매개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묶여 있다. 그러한 결속은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먼저 과거의 관계를 좋은 방식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배우자를 온전히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헤어짐으로 인한 고통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설사 낙태된 아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위한 고통과 애도가 내면에서 완료되어야 하고, 아이를 위한 자리를 부모의 가슴속에 마련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역동이 표면에 드러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일단 표면화된 뒤에는 애정과 배려의 마음으로 작별을 고향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느낌에 솔직해지는 것, 그게 바로 치유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더 나은 단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우월감이 사라지고 남녀가 함께 인간적인 단계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동등함을 전제로 한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 내가 기꺼이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치유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남은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 당신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영혼이 명료함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결론을 지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